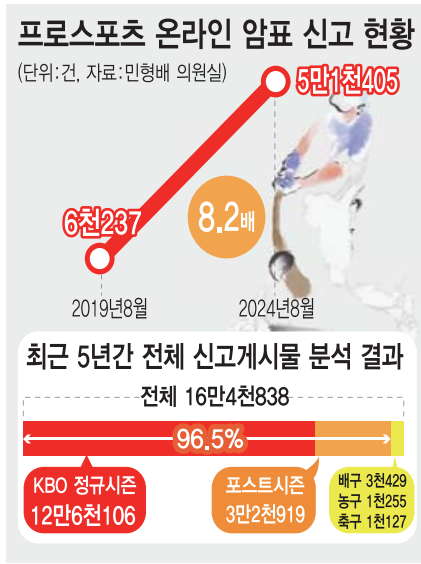


프로스포츠 온라인 압표 올해 8배 이상 '폭증'



프로야구가 96.5%로 1위...이어 배구·농구 順 문제부, 신고센터 운영 불구 수사 의뢰 없어 민형배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할것”

기아 타이거즈의 프로야구 정규시즌 우승으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프로 야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프로스포츠 온라인 압표 신고가 5년 전에 비해 8.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사

진)이 1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프로스포츠 온라인 압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압표 신고 건수는 5만1천406건으로 5년 전(6천237건)에 비해 8.2배 폭증했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하반기 신고 건수까지 더하면 압표 신고 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 의원실이 최근 5년간 전체 신고계수 16만4천838건을 분석한 결과, KBO 정규시즌과 포스트 시즌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각각 12만1천610건, 3만2천919건으로 전체의 96.5%를 차지했다. 10건 중 9건 이상이 프로야구 압표 신고인 셈이다. 다음으로는 KOVO(배구) 3천429건, KBL(농구) 1천255건, K리그(축구) 1천127건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압표 중에서는 중고나라를 통한 신고가 전체 3만376건 중 1만1천989건(30.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번개장터 5천837건(19.2%), 당근마켓 5천782건(18.9%), 티켓메이 2천974건(9.8%), 트위터 2천772건(9.1%) 등의 순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압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건전한 티켓 구매 문화 정착을 위해 2019년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프로스포츠 온라인 압표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문제부가 온라인 압표

근절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민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2020년 프로스포츠 온라인 압표 신고센터' 운영 이후 문제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대부분 경고문 발송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민형배 의원은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압표 거래 전면 금지를 권고하자 문제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불만 해소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소방공무원·병원 노동자들 응급의료 한 축...의견 담아야”

전종덕, 소방본부 등 방문...여의정 협의체 소방공무원 참여 촉구

'의정 갈등'이 7개월을 넘기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과 병원 노동자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를 주선한 사람은 간호사 출신인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비례·사진)이다. 전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6·17일 광주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시작으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119안전센터,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이어 장성소방서, 영광소방서 등을 누비며 노동자들과 1박2일 동안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

전 의원은 이번 만남에 대해 “추석 명절에도 불이 꺼지지 않은 수많은 곳 중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담당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싶었다”며 “소방서와 병원을 방문해 노동자들의 고충을 듣고 별, 제도 개선에 나서기 위한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방서 구급대원들과 보건의로 노동자들은 “시스템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서로 공유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자”며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만난 소방서 구급대원들은 “1분, 1초에도 생사를 다투는 일을 하는 현장 노동자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며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병원 배정이 늦거나,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자 수용이 거부돼 안타까운 상

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의정 협의체 구성에 의하면 포함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응급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도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원 노동자들은 “의정갈등 7개월간 의료 공백을 매꾸기 위해 응급실과 병원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병원 노동자들은 번아웃 상태라 추석 이후가 더 걱정”이라며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김진수기자



추석 민심 최대 화두는 분노...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18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과 향후 정책'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료대란의 불안감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 등 추석 민심을 토대로 본 현정국 상황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전 교체가 시작된 초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의도 가을은 '사법 리스크'의 계절

총선 선거법 위반 시효 내달 10일...추 1심 선고도 예정

추석 연휴 기간 오랜만의 휴식을 거친 여야 정치권의 시선이 10월 켈린더에 쏠리고 있다.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10일 만료될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판 중 일부의 1심 선고가 10월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수사 사실이 알려진 인사는 여야 합쳐 10여명 수준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형동·서일준·조지

현역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를 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정준호 의원 등 10여명이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실시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의원, 재산을 축소하거나 누락해 신고한 혐의가 있는 이상식·양문석·이병진 의원, 여론조사를 왜곡해 발표한 혐의를 받는 김민수 의원 등이다. /연합뉴스

현역 의원 기소 외에 민주당이 더 신경 쓰는 부분은 이미 알려진 이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현재 기소된 7개 사건의 4개 재판 중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의혹 재판의 1심 선고가 10월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들이 대거 기소에 더해져 이들 1심 중 일부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이대표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무죄가 나온다면 친명(친이재명) 체제는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대표가 사법 리스크의 한복판에 선 만큼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에 더 취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의힘 역시 10월10일 이후 '한동훈 대표 체제'가 어떤 변화를 맞을 지에 시선이 집중된다. /연합뉴스

서삼석 “휴게소 음식, 수입산일색”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에 여전히 수입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이 1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판매 상위 품목 3개인 호두과자(호두), 우동(우동면), 국밥(소고기)의 식자재에 수입산을 이용하는 휴게소 비율은 각각 100%, 100%, 70%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가 관리 고속도로 휴게소는 287개다. 휴게소는 의주를 주는 방법으로 25개가 운영 중인데, 도로공사가 직영으로 운영 중인 3곳 중 2곳(문막(양평)·하남(도립))도 상위 3개 품목을 모두 수입산을 사용했다.

2013년 한국도로공사는 국회 국정감사 당시 판매 음식 식자재의 수입산 지적이 제기되며 품목을 국산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맥반석 오징어 품목의 경우 오히려 국내산 오징어를 사용하는 휴게소 비율이 2013년 95%에서 올해 12%로 급감했다.

서삼석 의원은 “대통령실은 지난해 국내산 수산물 소비 장려를 위해 구내 식당 식사 이벤트 등을 연 바 있지만 정작 국가가 운영, 관리하는 휴게소 음식의 식재료는 수입산 일색”이라며 “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국내산 식재료 활용을 통한 안전 먹거리로 국민 건강과 농어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